

‘타이어·열관리·배터리’ 3박자… 글로벌 하이테크 그룹 도약

28 한국엔컴퍼니그룹

Hankook & Company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조현범 회장이 추구해 온 글로벌 하이테크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핵심 사업인 타이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과 함께 배터리(납축 전지)를 그룹의 주요 성장 축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며 그룹 전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엔 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부문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10조 3186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한온시스템 인수 첫 해인 지난해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 노력이 성과를 내며, 수익 구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도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Hankook) 배터리(납축전지)’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타이어 타이어 매출액 10.3조
전년비 9.6% ↑, 창사 10조 돌파
전기차 타이어 ‘아이온’ 기술 기반
북미·중동·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美 테네시 공장 생산 비중 높여
관세·물류비 부담 ↓… 실적개선 기대**

◆ 한국타이어, ‘아이온·다이나프로’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입증

한국타이어의 세계 최초 플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이 올해에도 글로벌 무대에서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보급한 전기차 타이어의 교체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온’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상용화 시대를 예견하고 2010년부터 원천 기술 확보에 매진하며 ‘아이온’의 기술 토대를 마련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R&D 혁신을 거듭한 결과 독자 기술 체계 ‘아이온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iON INNOVATIVE TECHNOLOGY)’를 정립하고 2022년 유럽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 ‘아이온’ 브랜드를 론칭하며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타이어 후원 2026 WRC 포르투갈 랠리 - 현대 셀 모비스 월드 랠리 팀 주행모습.

‘다이나프로(Dynapro)’는 SUV와 픽업트럭 본고장 북미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북미 시장은 아웃도어·오프로드 레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해 실용성이 뛰어난 SUV와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기술력이 탑재된 ‘다이나프로’ 제품군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Hankook)’의 혁신 테크놀로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톱티어(Top Tier)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 출시로 가장 진보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 주요 스포츠 구단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혁신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수익성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상반기 유럽과 국내에서 약 3%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시장에서 2~3% 수준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원재료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테네시 공장의 생산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기존 테네시 1공장에 이어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와 트럭·버스용 타이어 생산설비를 추가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되면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500만본과 트럭·버스용 타이어 100만본의 연간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현지 생산비중이 높아지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타이어 이용관 한국사업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 속 고하중·고토크 차량의 겨울철 안전 확보와 계절별

타이어 교체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길 원하는 전기차 고객의 니즈를 확인했다”며 “‘아이온 플렉스 클라이밋’은 한국타이어의 EV 기술력이 집약된 상품으로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 3%대 영업이익률 유지
지난해 연간 매출 10.8조, 8.9% ↑
열관리 기술 포트폴리오로 차별화**

**한국, AGM 배터리 안정적 성장세
100개국, 450개사 판매 네트워크
납축전지 업계 중 美 생산거점 ‘유일’**

◆ 한온시스템, 전사적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 성과 창출

한온시스템은 한국엔컴퍼니그룹 인수 합병 이후 추진해 온 전사적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3분기(3.5%)와 4분기(3.4%) 연속으로 3%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10조 8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성장했다.

아울러 유상증자를 통해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에도 원가율 개선 및 수익성 회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에는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높은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자본 시장에서의 조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4월 16일 진행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액 대비 약 10배 수준의 수요를 기록하여 당초 15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발행금액을 22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연기관(ICE) 및 하이브리드(HEV) 모델의 생애주기(Life Cycle)가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기존 주력 제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유럽 고객사의 전동화 확대 및 하이브리드(HEV) 수요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온시스템은 내연기관(ICE)부터 하이브리드(HEV), 순수전기차(B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수소전기차(FCEV)에 이르기까지 전 차종을 아우르는 열관리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기차 열관리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동화 전환이 재가속화될 경우 이미 마련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국엔컴퍼니 ‘한국 배터리’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한국(Hankook) 배터리 사업’, AGM 배터리 생산·판매 확대

한국(Hankook) 배터리 사업은 한국엔컴퍼니그룹 고유 브랜드 ‘한국(Hankook)’의 패밀리 브랜드로서 타이어·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과 함께 그룹의 핵심 동력으로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대외 환경 악화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프리미엄 상품인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프리미엄 성장 전략에 맞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약 100개국, 450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납축전지 업계 중 미국 현지 생산거점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미국 관세 영향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라인인 AGM 배터리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는 지난해 10월 조현범 회장의 브랜드 철학 하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 중인 그룹 통합 브랜드 ‘Hankook’ 아래에 ‘에너지·하이테크·미래’라는 배터리의 정체성을 담은 신규 태그라인인 ‘charge in motion’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Hankook’의 패밀리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고객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BI를 앞세워 프리미엄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 생산 및 판매 확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 마케팅 측면에서 유럽, 북미, 중동 등에서 열리는 주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여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엔컴퍼니의 배터리 사업은 최근 대외 환경 악화로 성장이 주춤했지만 주요 수익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1조 4576억원, 영업이익은 411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 등 제품·상품 매출은 1조 44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1.7%를 차지했다. 특히 AMG 배터리 시장은 2023년 9100만대에서 2030년 1억 8400만대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1억 220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고부가가치 배터리 제품 비중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 관세 등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도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견조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한국엔컴퍼니그룹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